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눅 08:22-25)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살아 가는 현장에 불어 닥쳐 오는 파도를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서 잠이 드셨을 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가로되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롬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하다면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같은 아우성 가운데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풍랑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들이 불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절망적입니다. 모든 문들이 닫힙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시련,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문이 열려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십니다.

성도는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 차 가라 앉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어두움의 때를 준비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는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가는 길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믿음에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